

아동의 일상 대화에 나타난 질문 확장의 발달 양상*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정선** · 김명희***
(한양대)

<Abstract>

Kim Jung-sun & Kim Myung-hee. 2005. The developmental aspect of the expansion of question in children's conversation. *Korean Semantics*, 18.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development aspect of the expansion of questions in children's conversation. The expansion of question can be classified into the questions' performance reinforcement and the question activity's expansion. And these can be divided into sub-category. We examine the development aspect of expansive questions' sub-category by age. When it comes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as following. 1) The expansion of question increase as the children' age rises. 2) In the logical reinforcement, the adducing reasons increase and the offering background information decrease as the children' age rises. 3) Among the clarifying reinforcement, the repetition of question decrease and the concreting increase by aging. 4) As the schoolchildren rises, the arrangement expansion decrease and the deepening expansion increase in the question activity's expansion.

핵심어: 질문 확장(expansion of question), 수행성 강화(performance reinforcement), 질문 활동의 확대(question activity's expansion), 논리적 강화(logical reinforcement), 명료화 강화(clarifying reinforcement), 메타적 강화(meta-speech act reinforcement), 나열 확장(arrangement expansion),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2-074-AM1055)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교신저자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일상 대화에 나타난 질문 확장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화행은 한 번의 발화를 통해 수행되기도 하지만 여러 발화에 걸쳐 수행되기도 한다. 화행의 확장이라 불리는 후자는 언어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발화와 발화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능력에 대한 분석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의 언어 능력 발달을 설명해 줄 수 있다.¹⁾ 나아가 질문만이 아니라 진술, 명령 등 화행 전체에 대한 분석은 대화를 진행시키거나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밝히는 데에 바탕이 될 것이다.²⁾

질문의 확장에 대해서는 김정선·장경희(2005)에서 다룬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치원 집단과 초등학생 집단에서 어떠한 발달적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질문은 대화에서 청자의 대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청자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화자의 화행 의도가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청자의 응대가 언어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동이 수행하는 여러 화행 가운데에서도 언어적 상호작용 능력의 발달을 볼 수 있는 화행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화 코퍼스를 분석 자료로 삼아 질문 확장에 대한 양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의 질문 확장 능력의 발달 양상을 밝히려 한다.

- 1) 화행 연구에서는 화행의 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화행은 단일 발화로 실현된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대화를 관찰해 보면 본 연구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확장된 화행은 대화에서 일정 수준의 출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장경희(1999:169)에서는 대화를 확장하는 방법에 요구화행과 응대화행으로 구성된 발화 교환 행위의 점속과 내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석 대상 자료는 5-7세까지의 유치원생과 1-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녹음·전사한 것이다.¹⁾ 분석 대상은 연령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당 20명씩이며 전체 녹음자는 180명이다.²⁾ 녹음은 동일 연령, 동일 성별에 속하는 아동을 2명씩 짝을 지어 40분 동안,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며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빈 교실에서 주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음성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분석 자료를 정리해 보이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자료의 연령별 인원과 파일 분포

	유치원			초등학생						합계
	5세	6세	7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대상인원(명)	20	20	20	20	20	20	20	20	20	180
대상파일(개)	10	10	10	10	10	10	10	10	10	90

수집한 음성 파일은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표 2>에 제시된 전사 기호에 따라 파일당 2,000어절씩 전사하였다. 본 연구는 총 190,441 어절수의 코퍼스를 대상으로 삼았다.³⁾⁴⁾

- 1) 아동들의 대화 능력에 대한 진정한 검사는 아동들이 또래들과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이현진 외 공역 2002: 331).
- 2) 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연령당 20명은 남녀 각각 10명씩으로 구성하였다.
- 3) 분석 자료의 연령별 어절 수는 다음과 같다.

<표> 분석 자료의 연령별 어절 수

	유치원			초등학생						합계
	5세	6세	7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어절 수	19,722	20,212	21,506	21,375	21,499	21,766	21,230	21,217	21,914	190,441

- 4) 코퍼스 연구는 대표성과 균형을 갖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대표성이 있는 말뭉치란 표본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규모의 측면보다는 언어적 특성이 얼마나 넓고 다양하게 표본 텍스트에 들어있는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대표성 획득은 표본의 크기, 포함된 단어의 수와 같은 외형적인 특징

<표 2> 전사 기호

전사 기호	기호 설명
?	상승 억양
!	활기에 넘치는 기운찬 어조
,	약한 상승 또는 하강, 약간의 휴지 등
.	한 발화의 끝
((-))	잘 들리지 않는 발화
[두 사람의 말이 겹칠 경우
-	의도적인 장음
=	끊어진 발화
< >	사람의 음성 중 비언어적인 소리
()	발화의 표준 형태
{ }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
“ ”	인용 표시
&	3초 이상 침이 나타나는 경우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질문 확장의 유형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유형별 발달 양상을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통계 처리는 ‘유치원 집단,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통계 처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Microsoft Excel이고, 유의성 검정은 피어슨(Pearson)의 카이제곱 통계량(X^2)을 이용하였다.

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홍운표 외 2002: 262-3). 구어 코퍼스의 경우 각 연구자마다 분석 자료로 삼고 있는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정 언어 현상을 분석할 때의 코퍼스 규모와 해당 코퍼스의 전반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코퍼스의 규모가 다를 것인데 현재 이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구어 연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코퍼스가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실 아래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대화 상황에서 집단별 동일 인원, 동일 크기의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여 균형성을 확보하였다.

2. 질문 확장의 유형5)

질문의 확장은 질문 발화와 이에 연속되는 질문 발화의 명제 내용이 상위 주제를 형성하며 정보 요구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연속된 두 발화가 질문 발화와 이에 대한 보조 발화로 구성되어 정보 요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⁶⁾ 이러한 질문 확장은 그 수행 동기에 따라 하위 구분이 가능한데, 화행 자체가 지닌 특성인 수행력과 화행을 구성하는 명제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질문의 수행성 강화'와 '질문 활동의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질문의 수행성 강화는 질문 발화에 연속되는 발화가 정보 요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정보 요구의 의도를 청자에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발화나, 정보 요구 행위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발화 등이 질문 발화와 함께 실현되는 것이다. 즉, 화자가 자신의 정보 요구 의도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추가 발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성 강화에는 연속되는 발화의 내용, 화자의 의도 등을 기준으로 논리적 강화, 명료화 강화, 메타적 강화 등이 있다.

논리적 강화는 질문을 수행하는 발화와 연속되는 발화들이 논리적 관계를 맺으며 확장되는 것이다. 화자는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근거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 정보와 관련된 화자의 경험, 생각 등을 함께 제공하며 청자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고자 한다. (1)은 질문의 이유를 제시하는 예이고, (2)는 질문의 배경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예이다.

(1) 아동1: 어 지오디는 어떻게 됐냐? [어 나 지오디 팬인데-

아동2: [1몰라 지오= <초등5>

(2) 아동1: 어우 씨! 배 아파. 너 배 안 아파?

아동2: 안 아파. 나는 최강자야. & 배 윗몸 일으키기? <초등6>

5) 질문 확장의 유형과 이에 대한 예시는 김정선·장경희(2005)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6) 이때 연속되는 발화는 동일 말차레에서 출현할 수도 있고,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 화자의 다음 말차레에 출현할 수도 있다

명료화 강화는 화자의 질문 의도를 청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확장이다. 질문을 반복하거나, 질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발화를 덧붙여 발화수행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복, 환언, 구체화 등이 이에 속한다. (3)은 반복, (4)는 환언, (5)는 구체화의 예이다.⁷⁾

(3) 아동1: 누나 몇 명 있어?

아동2: 어?

아동1: 누나 몇 명 있어? <초등2>

(4) 아동1: 야 너 랍보 좋 아냐?

아동2: 아니.

아동1: 랍보 좋 몰라? <초등5>

(5) 아동1: 근데, 어느 숫이었어, 오버헤드킵이야- 아니면은, 헤딩숫이야- 아니면은 그냥 발로 찬 숫이었어?

아동2: 발. <초등3>

수행성 강화에는 질문 화행 자체에 대한 화행이 질문과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메타적 강화도 있다. 질문 화행에 대한 대답 화행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거나, 질문 화행 자체에 대해 언급하거나 하는 등의 메타 화행이 연속되어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보이면 (6)과 같다.

(6) 아동1: 근데, 너는, 너는- 민정이가 좋아, 재영이가 좋아, 내가 좋아. 얘기해 봐.

아동2: 다 좋아. <초등3>

대화에 나타난 질문과 이에 연속하는 발화는, 화자가 수행하는 화행의 발화수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 활동 자체가 반복되며 확대되기도 한다. 이때 연속하는 두 질문 발화는 하나의 상위 주제를 형성하고

7) 김정선·장경희(2004)에서 이러한 반복을 발화 화행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질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발화 화행 확인은 주변의 소음 등과 같은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아동의 언어 능력 즉, 선행 발화에 대한 집중력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있기 때문에 질문의 확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앞서 살핀 수행성 강화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수행성 강화와 질문 활동의 확대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두 질문이 연속하는 것이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화자의 의도에는 차이가 있다. 요구하는 정보의 수에서 차이가 있고, 확장 결과 또한 달리 나타난다. 수행성 강화는 요구 정보가 하나이고 이를 꼭 제공받기 위해 두 번의 질문을 수행한 것인 반면, 질문 활동의 확대는 요구 정보가 둘 이상이 되어 질문을 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그 결과, 전자를 통해서 주제가 전개되지 않았지만, 후자를 통해서 대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전개되었다.⁸⁾ 이러한 질문 활동의 확대는 한 화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화자의 동일 말차례 안이나 청자와의 말차례 교체를 통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확장되는 주제들의 관계에 따라 나열 확장과 심화 확장으로 나누어진다. 나열 확장은 화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두 개 이상이며 이들이 대등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심화 확장은 선행 질문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후행 질문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심화 확장은 주로 화자의 질문에 대한 청자의 대답을 통해 발생하며, 청자의 대답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질문을 이어 하거나 청자의 대답을 통해 화자 스스로 추리해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일어난다. (7)은 나열 확장의 예이고, (8)은 심화 확장의 예이다.

(7) 아동1: 한, 너- 집에 텔레비전 몇 대 있어?

아동2: 세 대. 나는.

아동1: 나는? 다섯 대. 그럼 너는 에어컨 몇 대 있어? <초등2>

(8) 아동1: 지금도 바이올린 선생님이야?

아동2: 어. 유민이 언니 가리키고 있어.

아동1: 유민이 언니가 누군데?

아동2: 어. 우리 엄마가 가리키는 학생이야. <초등2>

8) 유동엽(1997:79)에서도 대화의 화제 진행을 위해 '질문'이나 '진술'이 기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집단별 질문 확장의 발달 양상

본 장에서는 집단별 질문 확장의 발달 양상을 각 범주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 조사를 통해 살펴보겠다. 조사 항목은 질문 가운데 확장 질문이 차지하는 비율, 상호작용을 통한 확장이 차지하는 비율, 확장의 하위 유형별 수행 비율 등이고, 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집단으로 나누어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에서 정보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질문 가운데 확장 질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보도록 하자. <표 3>에 의하면, 집단에 따라 단순 질문과 확장 질문의 출현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 < 0.001$ $df=2$ $X^2=64.417$).

<표 3> 단순 질문과 확장 질문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⁹⁾

집단 \ 유형	단순 질문	확장 질문	합계
유치원	787 (684) 69.2%	350 (453) 30.8%	1137
초등-저학년	881 (903) 58.7%	621 (599) 41.3%	1502
초등-고학년	760 (841) 54.3%	639 (558) 45.7%	1399

$p < 0.001$ $df=2$ $X^2=64.417$

각 집단 내에서 단순 질문과 확장 질문의 분포는 단순 질문이 확장 질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

9) 표에 제시된 첫 번째 숫자는 출현 빈도, 두 번째 괄호 안의 숫자는 기대도수, 세 번째 숫자는 백분율을 의미한다.

순 질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확장 질문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확장 질문의 증가는, 청자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단순히 일회적인 질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가 달성되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하며 질문하는 능력과 질문으로 주제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제 확장 질문 내의 구체적인 수행 양상을 살펴보겠다. 아동이 확장 질문을 사용하는 동기에 따른 결과는 <표 4>와 같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 < 0.001$ $df = 2$ $X^2 = 33.507$).

<표 4> 확장 동기에 따른 질문 확장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집단 \ 유형	수행성 강화	질문 활동의 확대	합계
유치원	259 (218)	64 (105)	323
	80.2%	19.8%	
초등-저학년	342 (350)	177 (160)	519
	65.9%	34.1%	
초등-고학년	361 (395)	225 (191)	586
	61.6%	38.4%	

$p < 0.001$ $df = 2$ $X^2 = 33.507$

유치원 집단에서는 정보 요구 기능의 강화가 80%이상을 차지하며 주를 이루던 것이, 초등 집단에서는 60%대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학년과 고학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해 주제 확장을 위한 확장 질문의 사용 비율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¹⁰⁾ 즉, 유치원 집단에서는 주로 수행성 강화를 위해 질문을 확장하

10) 주제를 전개시키는 능력은 질문 확장 능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주제의 도입, 유지, 종결을 위해서는 진술, 명령 등 여러 화행들이 관여하는데 이들 개별 화행들의 확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가 초등학생 집단에 들어서면서는 주제 전개를 위해 질문을 확장하는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문 활동의 확대가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질문 화행 수행 능력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질문 확장의 수행 동기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증가가 곧 언어 능력의 발달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표 4>의 결과로부터 두 가지 확장 동기 가운데 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수행성 강화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령 이전의 집단, 즉 질문 화행이 처음 출현하는 시기인 12개월부터 4세까지의 아동과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¹⁾ 또한 초등학교 집단 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과연 성인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초등학교 집단이 보이는 발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의 확장이 동일 화자의 말차례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청자와의 말차례 교체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집단에 따라 유의미하였다($p < 0.001$ $df=2$ $X^2=53.769$).

11) 대화 상대방에게 언어적 응대를 요구하는 질문 화행은 언어능력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기에 수행된다. 자신의 정보 결핍을 해소하려는 인지 체계 발달, 질문과 응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질문 수행 방법과 형식의 습득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명령 화행이나 진술 화행 등이 몸짓이나 표출 기능적 음성 등을 수단으로 하여 12개월 무렵부터 활발히 수행되는 것과는 달리 질문 화행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발달하게 된다. 장경희·이삼형·김정선(2003)에 의하면 12-17개월 사이에도 몇 개의 질문이 출현하기는 하나 빈번한 출현이 관찰되는 시기는 18개월 이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청자와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른 질문 확장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

집단 \ 유형	청자와의 말차례 교체	동일 화자의 말차례	합계
유치원	181 (236) 51.7%	169 (114) 48.3%	350
초등-저학년	428 (418) 68.9%	193 (203) 31.1%	621
초등-고학년	475 (430) 74.3%	164 (209) 25.7%	639

p<0.001 df=2 $X^2=53.769$

각 집단별로는 청자와의 말차례 교체를 통한 확장이 동일 화자의 말차례 내에서의 확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자의 언어적 응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질문 화행이 지닌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자와의 말차례 교체를 통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호작용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수행성 강화의 경우부터 하위 범주별로 구체적인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행성 강화는 ‘논리적 강화, 명료화 강화, 메타적 강화’로 나눈 바 있는데, 각각의 유형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1 df=4 $X^2=7.846$).

<표 6> 수행성 강화의 하위 범주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

집단 \ 유형	논리적 강화	명료화 강화	메타적 강화	합계
유치원	52 (41) 20.1%	192 (203) 74.1%	15 (15) 5.8%	259
초등-저학년	47 (54) 13.7%	270 (268) 78.9%	25 (20) 7.3%	342
초등-고학년	52 (57) 14.4%	293 (283) 81.2%	16 (21) 4.4%	361

p<0.1 df=4 $X^2=7.846$

<표 6>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명료화 강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논리적 강화, 메타적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명료화 강화는 증가하고 논리적 강화와 메타적 강화는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세 가지 강화 방법 가운데 가장 습득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논리적 강화가 유치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형식적인 강화 방법이라 볼 수 있는 명료화 강화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강화 유형별로 그 구체적인 강화 방법의 출현 빈도와 백분율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논리적 강화는 질문하는 이유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와 질문하는 상황 등 배경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로 나누었는데,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치원 집단과 초등학생 집단 모두 전자보다는 후자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유 제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고, 배경 정보 제공은 감소하였으며 위의 두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df=2 $X^2=4.838$).

<표 7> 논리적 강화의 하위 범주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

집단 \ 유형	이유 제시	배경정보 제공	합계
유치원	11	41	52
	(14) 21.2%	(33) 78.8%	
초등-저학년	12	35	47
	(13) 25.5%	(30) 74.5%	
초등-고학년	19	33	52
	(14) 36.5%	(33) 63.5%	

p<0.1 df=2 $X^2=4.838$

이와 같은 결과는 사건과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 제시가 질문과 관련된 단순한 배경 정보의 나열보다 습득하기 어려운 확장 방법이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¹²⁾

명료화 강화의 하위 범주별 변화 양상은 <표 8>과 같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반복은 감소하고 구체화는 증가하며, 환언은 일정한 변화 방향이 없었는데, 이 결과는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0.001 df=4 $X^2=55.410$).

12) 언어 발달이 완성된 화자의 경우라면 정보를 요구하기 이전에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보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경 정보 없이 직접적인 질문을 할 때보다 청자의 부담감을 줄여 대답을 끌어내기 쉬우며, 청자를 배려하는 화법으로 인식될 수 있다(김정선·장경희 2005).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청자를 배려하기 위해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동은 자신의 환경, 상황, 의도 등에 대해 청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발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질문을 할 때에도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청자를 고려해서가 아니다.

<표 8> 명료화 강화의 하위 범주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

집단 \ 유형	반복	환언	구체화	합계
유치원	132 (89) 68.8%	17 (23) 8.9%	43 (80) 22.4%	192
초등-저학년	109 (125) 40.4%	39 (33) 14.4%	122 (112) 45.2%	270
초등-고학년	108 (135) 36.9%	36 (36) 12.3%	149 (122) 50.9%	293

p<0.001 df=4 $X^2=55.410$

반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치원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행 질문에 대한 내용 추가나 변형 없이 다시 수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명료화 강화 방법에 비해 습득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치원 아동에게서 반복이 많은 이유는, 대화에의 집중도가 아직은 떨어져 ‘어?, 뭐?’와 같은 발화 화행 확인 응대로 유발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을 유도하는 청자의 응대 유형을 검토해 보면 청자의 되물기에 대한 비율은 오히려 다른 집단에 비해 낮고, 응대 거부나 긍정 응대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¹³⁾ 즉, 청자가 질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이미 하였거나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질문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상호작용 능력이 완성되지 않아서 청자의 응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환언은 명료화 강화 방법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로 수행되고 있었다 (<표 8> 참조). 청자의 응대가 화자의 예상과 빗나간 대답이거나 적절한

13) 반복 강화 중, 동일 말차레 내에서의 반복을 제외한 청자와의 말차레 교체를 통한 반복을 청자가 수행한 응대 유형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반복의 응대 유형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자주 발생하고, 하나의 개념이나 표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환언을 유발하는 청자의 응대를 검토해 보면, 환언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만이 부정 응대나 되묻기에 대한 응대로 환언 확장이 수행되었고, 유치

유형 집단	긍정응대	부정응대	응대거부	되묻기	합계
유치원	22 (19) 34.9%	2 (3) 3.2%	16 (10) 25.4%	23 (31) 36.5%	63
초등-저학년	10 (16) 18.5%	4 (3) 7.4%	8 (9) 14.8%	32 (27) 59.3%	54
초등-고학년	20 (18) 33.3%	3 (3) 5.0%	5 (10) 8.3%	32 (29) 53.3%	60

$p < 0.05$ $df = 6$ $X^2 = 13.135$

14) 부정의 전제를 가지지 않는 한 판정 질문을 하는 화자는 부정의 응대보다는 긍정의 응대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15) 환언 강화 가운데 청자와의 말차례 교체를 통한 환언을 청자가 수행한 응대 유형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환언의 응대 유형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

유형 집단	긍정응대	부정응대	응대거부	되묻기	합계
유치원	7 (5) 58.3%	1 (4) 8.3%	2 (1) 16.7%	2 (2) 16.7%	12
초등-저학년	8 (7) 42.1%	6 (7) 31.6%	1 (1) 5.3%	4 (4) 21.1%	19
초등-고학년	7 (10) 26.9%	13 (9) 50.0%	1 (2) 3.8%	5 (5) 19.2%	26

$p < 0.5$ $df = 6$ $X^2 = 8.474$

원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긍정 응대나 응대 거부에 대해 환언 확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우선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화자의 질문에 대한 청자의 정보 제공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욕구의 표출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욕구 표출을 위해, 반복 확장이 유치원 집단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면, 보다 어려운 확장 방법인 환언 확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집단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자의 응대를 고려하지 않는 환언 확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의 강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화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8> 참조). 구체화 가운데 의문사로 먼저 질문하고, 다음 발화에서 의문사에서 제시한 정보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하는 방법은 단순히 내용의 강화일 뿐만 아니라, 대화 전략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확장 방법이라 생각된다. 선행하는 의문사 질문이 후행하는 구체화 질문에 대한 범주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청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주를 한정하여 활성화시키고 뒤이어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대답을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인 성격이 강한 구체화 확장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질문 활동 확대의 하위 범주별 변화 양상을 보면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df=2$ $X^2=22.640$). 각 집단 모두 나열 확장이 심화 확장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확장 방법 모두 집단에 따라 일정한 변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집단에서 나열 확장이 증가하였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이 되면 다시 유치원 집단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심화 확장은 그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표 9> 질문 활동 확대의 하위 범주별 출현 빈도와 백분율

유형 집단	나열	심화	합계
유치원	32	60	92
	(27)	(65)	
초등-저학년	102	177	279
	(80)	(199)	
초등-고학년	53	225	278
	(80)	(198)	
	24.8%	65.2%	
	36.6%	63.4%	
	19.1%	80.9%	

$p < 0.001$ $df = 2$ $X^2 = 22.640$

이와 같은 결과는 대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 집단은 2명씩 짝을 지어 놀이 도구를 주고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였고, 초등 집단은 빈 교실에서 2명씩 특별한 놀이 기구 없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였는데, 이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래서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질문 활동의 확대의 경우는 유치원 집단과 초등학교 집단과의 비교보다는 초등학교 내에서의 비교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동일한 대화 상황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 의미 있다고 본다.

16)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재촉하거나 할 얘기가 없다는 발화를 자주 볼 수 있었다.

- (1) 아동1: 그게 끝이야?
 아동2: 어. 그 다음 너야. & 빨리 해-.
 &
 아동1: 너 ((-)).
 아동2: 없냐? 이야기 할 게?
 아동1: 어. 별로 없나 봐. <초등 1>

다시 <표 9>를 보면, 초등학교 집단 내에서 나열 확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심화 확장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심화 확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저학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질문을 통한 깊이 있는 전개를 이루며 대화를 진행시키는 능력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 대화에 나타난 질문 확장의 발달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질문의 확장을 크게 수행성 강화와 질문 활동의 확대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하위 범주별 수행 양상에 대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양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장 질문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화자의 의도 달성을 위한 아동의 화행 수행 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자와의 말차례 교체를 통한 확장도 증가하여 연령에 따라 상호작용 능력도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수행성 강화의 하위 유형인 논리적 강화에서는 이유 제시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배경 정보 제공보다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명료화 강화에서 반복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고, 구체화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복은 자신의 욕구 표출 의도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고, 구체화는 내용의 보충이면서 전략적으로 질문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연령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질문 활동의 확대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나열 확장은 감소하고, 심화 확장은 증가하여 연령에 따라 질문을 통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진행시키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구현정(2001), 개정 대화의 기법, 경진문화사.
- 김선화(2004), 메타 화행 수행 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 · 장경희(2004), “초등학생 대화에서 관찰되는 질문의 기능과 발달 양상,” 국어교육 115 158-184.
- 김정선 · 장경희(2005), “일상 대화에 나타난 질문 확장 양상,” 국어교육 118, 221-248.
- 류현미(1999), 국어 의문문의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송영주 역(1993), 담화분석(Stubbs M. W. 1983. *Discourse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한국문화사.
- 유동엽(1997), 대화 참여자의 대화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은영(1998), 대답의 분류와 특성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이창덕 외(2000), 삶과 화법, 박이정.
- 이창덕(1992), 질문 행위의 언어적 실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이현진 외 공역(2002), 언어발달, 시그마프레스.
- 장경희(1997), “대화 텍스트의 결속 구조,” 한양어문 15, 283-300.
- 장경희(1999), “대화의 접속과 내포,” 텍스트언어학 7, 141-177.
- 장경희(2000), “판정 질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 의미학 7, 149-174.
- 장경희 · 이삼형 · 김정선(2003), “유아의 질문 화행 습득 과정,” 텍스트언어학 15, 401-425.
- 홍윤표 외(2002),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김정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33-791

전화번호: 02-2220-2636(H.P. 011-9924-3302)

전자우편: olivetreel1@hanmail.net

김명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33-791

전화번호: 02-2220-1105

전자우편: mhkim@hanyang.ac.kr

원고접수일: 2005년 11월 13일
계재확정일: 2005년 12월 3일

KCS I